

남해군·관광문화재단, 부산 관광업계 초청 팸투어

기사입력 : 2022-07-04 08:08:43



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관광업계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해 'Visit 남해, Network Day'를 열었다. 이날 군은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설명회에 이어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특별여행기간 이벤트 등 혜택을 소개하고 광역시티투어, 남해관광플랫폼, 바래길 등 관광상품을 홍보했다. 또한 남해 관광의 관문인 남해각과 남해전통시장, 바래길탐방안내센터, 설리스카이워크, 독일마을 탐방 등 팸투어를 진행했다.

김호철 기자

<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, 무단전재·크롤링·복사·재배포를 금합니다. >

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



